

제2362호 2019. 6. 23.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받아먹었으니 내어줍시다

‘성체성사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를 위해 성체성사가 존재하는가’ 제가 신학생 때 ‘성사론’이라는 과목의 시험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둘 다’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내 안에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나 자신을 쪼개고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체성사의 본질은 나를 비롯한 이웃, 우리 모두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는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성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으면서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것은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생명의 빵을 받아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땅에서 일구어 낸 빵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공간에 빵이 차는 것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빵까지 가져와 내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빵을 양산해 내어 독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왔던 유혹자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가 땅에서 일군 빵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이것까지만”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내 이웃은 피와 눈물을 흘리며 굶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어줄 때 채워집니다. 나를 쪼개고 내어주어 생긴 빈 공간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빵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물이 되어 우리의 욕심을 씻어주고 탐욕의 갈증을 없애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땅에서 일구어 낸 빵이 많다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빵을 받아먹고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내어줍시다. 내 욕심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물이 샘솟게 합시다. 내 안에서 샘솟은 그 물이 이웃과 온 세상을 상대로 흘러넘치게(즈카 14,8) 합시다. 서로를 살리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빵(요한 6,27)을 쪼개어 나눕시다.



김태호 스테파노 신부 | 덕산동 보좌

주일 진례

입 당 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본 기 도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제 1 독 서 창세 14,18-20

화 답 송 ◎ 멜키세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 서 1코린 11,23-2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루카 9,11-17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당나귀왕자 메시아3. 세상을 향해 나를 열고

진례와 신앙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도대체 내 늑에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자, 어서 꺼지지 못해? 모두대! 꺼지라구, 꺼져!!
우린 쫓겨났어요. 파과드 영주가 난리를 치더니 떠나라는 독촉장을 보내왔어요.
동화 주인공들아, 내가 봐 줄 거라 생각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거부한다.
파과드를 만나러 당장 갈 거야. 그래서 너희 모두를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 보내버릴 거야!

-영화, 슈렉

슈렉은 자신의 안식처로 도망쳐 들어온 동화 주인공들이 귀찮아서 쫓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
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찾아간 영주의 성에서는 마침 기사대회가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참가한 슈렉은 압도적 기량으로 승리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공주를 구할
기사로 발탁된 슈렉은 결국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 냅니다.

이 모두는 슈렉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경험입니다. 혐오 받던 존재가, 무서움을 주는 단계를 거쳐,
이제는 자신이 가진 모습만으로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아직 사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슈렉은 조금씩 자신을 열어갑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자를 위해서 살 때에만, 그 순수한 자기실현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발견
한다.

- 칼 라너, 신앙고백

그 생명체의 눈동자를 들여다 보았을 때 거기에는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
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쳐다보기를 거절했던 지난날들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 트리나 폴러스, 꽃들에게 희망을

농민주일 행사 안내

농민주일(7월 21일)을 맞이하여
농업을 지키고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마산교구 내 **우리농 생활공동체**에서
모든 물품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가톨릭농민회원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로 식탁을 마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물품 : 연중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감자, 양파, 블루베리, 자두, 마늘

● 2019 교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워크숍



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지역자활분과(담당: 황인균 요셉 신부)는 6월 5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5명이 참석하여 아라가야 등 함안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였다. 황인균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에서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 일치하여 기쁨을 나누고,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거제성당 교육관 및 수녀원 신축 기공식



거제성당(주임: 이강현 베드로 신부)은 6월 5일 <교육관 및 수녀원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기존 사무실과 회합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되어 새 건물의 필요성이 생겼다. 새 교육관에는 사무실과 회합실은 물론 강당과 수녀원도 마련된다. 기공식에 총대리 박창균 시메온 신부와 지역 신부들, 본당 신자들이 모여 축복을 기원하였다.

● 교구 레지아 2단계 기사교육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강동주 세례자 요한)는 6월 8일 2단계 기사교육을 진주와 마산에서 실시하였다. 진주 1, 2, 3, 사천, 거창 꼬미시움은 신안동성당에서, 마산2 꼬미시움은 월영성당에서 모였다. 안상덕 前 레지아 단장과 이형수 블라시오 몬시뇰이 각각 진주와 마산에서 ‘레지오의 참된 영성 생활’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교육을 마친 레지오 단원들은 수료증과 함께 레지오 단기(백설리움) 뱃지를 받았다.

● 장평성당 ‘본당은 우리’ 피정



장평성당(주임: 서정범 세례자 요한 신부)은 6월 9일 ‘본당은 우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구 ME협의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평성당 신자 58명이 참여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고,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본당 공동체를 만들고자 다짐하였다.

● 합천성당 견진성사



합천성당(주임: 이민 베드로 신부)에서 6월 9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견진성사가 있었다. 33명이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견진성사의 의미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전하였다.

성찬: 분열에서 통합으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재림’에는 아마도 20세기에 가장 많이 인용된 문구가 있다. “모든 것이 쪼개진다. 중심은 못 잡는다. 단지 무질서가 세상에 풀린다.” 1920년에 쓰인 이 시는 갓 시작한 세기의 공포를 요약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직 다가올 공포도 예견하는 듯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느 정도 학계의 과장된 유행일 수 있지만, 그 토양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심의 붕괴이다. 권위 있고 활력을 주는 중심의 붕괴와 계속되는 분열을 우리는 매일 문화에서 정치에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 직면하여(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음의 문화’라고 부르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은 T.S. 엘리엇 시인의 말로 ‘반전의 지점’을 발견할 곳은 어디인가? 결국 성찬이다. 불타오르는 세상의 중심, 참 현존의 성사인 성찬이다.

성찬은 참여자에게 새로운 인격을 형성한다. 점차 변화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이도 할례 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스키타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골로 3,11)

성찬의 온 목표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키우는 것이다. 쪼개진 빵은 모여든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수단이 되고, 쏟아진 피는 세상을 속죄한다.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성찬에서 중심을 발견한다. 의미를 잃은 자들은 여기서 하느님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그렇기에 성찬은 순수한 선물, 은총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분의 유일한 아드님을 주셨다. 그리고 아드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계속 주신다. 성찬보다 더 분명히 주시는 곳은 없다.

그러나 성찬은 명령하는 임무이기도 하다. 성찬은 신자에게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허락하도록 요청한다. 변화무쌍하고 뿌리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아 대신, 성찬은 자신들이 관대히 받았듯이 관대히 주는, 중심이 있는 자아를 기른다.

— 로버트 임벨리(Robert Imbelli)의 ‘참 현존의 성사’ 중에서 —

“구원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제-셋”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어릴 적 본 만화에 친척 어른이 오랜만에 방문하셔서 어린 손자에게 “얘야, 넌 띠가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예, 제 띠는 가죽 허리띠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의 대답이지만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며 할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맙니다. 할아버지는 태어난 해의 12지신에 맞춘 동물 띠를 말씀했는데 어린 손자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띠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순결의 띠로 묶어 주소서. 제 허리에서 비천한 욕정을 없애시어 제 안에 절제와 정결의 덕을 쌓게 하소서.” 장백의를 입은 후 허리에 ‘띠’를 매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띠’는 허리에 두르는 ‘꼬네끼(끈)’로 만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먼저 신발 끈을 조이고 허리띠를 불끈 맵니다. 배가 고프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곤 노력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거나 굳은 결심을 실행할 때 하는 행동이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미사 전에 기도드리며 허리띠를 매는 것은, 세상의 영신 전쟁에서 주님 집으로 돌아온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제 스스로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싸우며 살다가 힘겹게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또 새로운 일주를 살아갈 힘을 사제는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제 또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세상과 싸워 이긴 사제가 다시 신자들을 위로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너는 몇 째니?

창세기 말씀 맛 들이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우리 산청성당은 하느님 말씀 찾아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본당 신부님의 철저한 준비로 창세기 말씀 맛 들이기 노트를 제본하였다. 창세기를 8개월 간 31주 분량으로 나누어 말씀해설 읽기, 창세기 본문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기, 성경 필사하기, 묵상하기(4문항 질문), 마음에 와 닿는 구절 외우기로 구성하여 정성껏 필사하도록 안내되어 있었고 전반 후반 두 번의 특강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나는 좀 더 깊이 묵상할 결심으로 최대한 작은 글자로 필사를 하여 묵상하고 얻은 느낌을 기록할 수 있는 지면을 확보하였다. 묵상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시되는 문항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였다. 안내서 없이 성경통독이나 필사를 할 때와는 다르게 말씀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여 일주일 분량을 다 마치고 다음주를 기다리지 못하고 건너가기도 하였다. 그러다 에사우와 야곱이 레베카 배 속에서 서로 부딪쳐서 주님께 문의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응답을 받을 때, 레베카가 야곱을 더 사랑할 때 괜히 서운했다. 내가 큰딸이고 큰며느리이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었다. 점점 나의 묵상은 형제간의 서열에서 오는 차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맏딸로서 맏며느리로서 효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홍예성 바울라 • 수필가

도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혼자서 짐을 지고 왔다는 억울함도 튀어나왔다. 야곱은 불공죽으로 형에게서 만아들 권리를 얻고 속임수로 축복기도까지 가로챘지만 뒤따르는 외숙 라반의 속임을 오랫동안 당했다.

형 에사우를 만날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였다. 에사우는 장정 사백 명과 함께 오고 있었으나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오는 그에게 달려가 먼저 껴안는 따뜻함을 보였다. 보호를 청하는 야곱의 겸허한 기도에 함께해주신 하느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리라 믿는다. 에사우가 그의 명예를 떨쳐버리고 모든 가산을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세이르 산악지방으로 옮겨갈 때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감내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심을 깨달아 나도 버겁게 느끼는 맏딸의 굴레를 내려놓았다. 건강하게 태어나 들판을 누비며 힘차게 사냥을 하는 에사우에 비해 몸이 허약하여 천막 안에서 지내야 하는 야곱이 레베카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으리라. 에사우의 너그러움에 힘입어 어머니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동생들의 사랑을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창세기 특강에서 “성경을 읽으면 치유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크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기억할 사제

6. 30.(일) : 故 제찬석 요한 신부



故 제찬석 요한 7주기 추도미사

일 시 : 6. 29.(토)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본당

■ 노동사목 신학생 연수

일 시 : 6. 25.(화)~27.(목) 2박3일

장 소 : 시튼영성의 집

■ 29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 시 : 6. 28.(금)~30.(주일) 2박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010.8864.7067, 010.9113.7062

■ 아버지, 어머니학교 총동창회

일 시 : 6. 29.(토) 09: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 격 : 1만5천 원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카톨릭플러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위원회·기관·단체

■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일 시 : 6. 25.(화) 10:00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일 시 : 6. 26.(수) 19:00

장 소 : 교구청 4층 회의실

문 의 : 055.261.8201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수도회

■ 전교 가르멜수녀회 성소식별피정

대 상 : 수도성소 식별을 필요로 하는 미혼여성

때·장소 : 7.12.(금)20:00~14.(주일)16:00/인천 수련소

문 의 : 010.6448.3191(성소담당 수녀)

■ 전교 가르멜수녀회 수도생활체험 피정

대 상 : 미혼여성, 어린이, 학생, 어머니

때·장소 : 8. 24.(주일)10:00~16:00/부산 연산동

■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 대피정

일 시 : 7. 19.(금)~21.(주일) 2박3일

대 상 : 중고생 대학일반(35세 이하 미혼 남성)

장 소 :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센터

문 의 : 010.5159.3949, 010.3894.1332

■ 가르멜산의 성모 재속 맨발 가르멜 회원모집

일 시 : 7. 22.(월) 10:00 매 3주(월)

자 격 : 만 50세 이하 남녀

장 소 : 마산 가르멜수도원

문 의 : 회장 010.3847.9632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칠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기 타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제6회 서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

주 제 : 품다

작품접수기간 : 10. 1.(화)~31.(목)

주최·주관 : 서울대교구·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문 의 : 02.3142.4504, www.sciac.net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알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30년 일본성지순례전문 나가사키&오사카 배/드/로/여/행/사 대표 노정삼 배드로 051.442.5730 010.3884.4590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전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table border="1"> <tr> <th>품격 순례</th> <th colspan="2">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th> </tr> <tr> <td>8월 20일 Asiana Airlines</td> <td>스페인, 파타마 성지순례</td> <td>11일 350 만원</td> </tr> <tr> <td>8월 20일 KOREAN AIR</td> <td>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td> <td>12일 429 만원</td> </tr> <tr> <td>10월 12일 Lufthansa</td> <td>파타마 루르드, 바티 성모발현지 순례</td> <td>13일 399 만원</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Asiana Airlines	스페인, 파타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KOREAN AIR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Lufthansa	파타마 루르드, 바티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Asiana Airlines	스페인, 파타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KOREAN AIR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Lufthansa	파타마 루르드, 바티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피정 (1박2일)

일 시 : 6. 24.(월) 15:00~25.(화)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조배에 관심 있으신 분
 참비 : 4만 4천 원
 준비물 : 수건, 세면도구, 개인컵, 미사준비
 문 의 : 010.3903.8234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순례

일 시 : 7. 6.(토)~7.(주일) 1박2일
 장 소 : 강원도 철원일대
 대 상 :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원
 신 청 : 전화접수 055.261.8201
 마 감 : 6. 28.(금) 선착순 40명 마감
 참비 : 3만 원(식사 및 차량제공)
 경남 504-07-0096809
 준비물 : 미사준비, 신분증 등
 주 최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197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7. 19.(금) 19:00~21.(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신 청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e-mail: chojs4418@korea.kr

- 198차 ME 주말 : 8. 30.(금)~9. 1.(주일)
- 20차 새신주말 : 9. 21.(토)~22.(주일)
- 199차 ME 주말 : 11. 15.(금)~17.(주일)



제23회 가톨릭미술가 협회 정기전

일 시 : 6. 4.(화)~30.(주일) 11:00~22:00
 장 소 : 맛산갤러리(브라운즈마산점 옆)
 문 의 : 사무국장 010.2309.7574

* 가톨릭미술가 협회 회원 모집 (영세받은 신자로 미술 활동하시는 분)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1박2일)

일 시 : 7. 13.(토) 10:00~14.(주일)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비 : 9만 원
 문 의 : 055.221.1891



2019 여름김장나누기

지난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올해도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김장합니다.

단기모금기간 : 7. 12.(금) 까지
 후원계좌 : 경남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입금시 김장+성함)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6. 24.(월) 19:00	월남동성당	성모성심을 통한 평화의 길	손무진 신부(사도 요한, 대구교구)	손무진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6. 24.(월) 19:00	반 송 성 당	하느님의 능력	최재상 신부(마티아)	최재상 신부	010-9969-5340
진주지구	6. 24.(월) 19:30	옥 봉 성 당	은총의 샘물을 마셔라	두현자(율리아, 의정부교구)	이재혁 신부(안드레아 아벨리니)	010-9644-4224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0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 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055.333.6300, 010.3720.0303 대표 우 종 한 리차드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8/27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9/18 터키, 그리스 13일 398만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 에덴동산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음은 창세기 내용이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후 네 줄기로 갈라졌다. 첫째는 피손강으로 하윌라 지방으로 흘러갔다. 둘째는 기혼강인데 에티오피아 땅을 적시며 흘렀다. 셋째는 티그리스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을 흐른다. 넷째는 유프라테스강이다.”(창세 2,10-14) 피손강과 기혼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상의 강이란 말도 있고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지하에 잠겼다는 설도 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이라크 땅에 있다. 원천源泉은 터키 동부 산악지대로 두 강 사이가 고대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다. 에덴동산은 이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성경의 에덴은 숲이 울창했고 아담과 하와는 알몸으로 지냈다. 벗고 살아도 좋을 만큼 쾌적한 곳이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는 일찍부터 문명이 번성했다. 기원전 8000년에 이미 곡물을 재배했고 양을 사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덴동산 위치는 공인되지 않고 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곳에 있었다는 주장과 가공의 장소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중세엔 누구나 실존하는 장소로 여겼고 이슬람 부호들은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 에덴동산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들의 일화는 중동 문학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에덴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다는 말에 이라크는 에덴동산 추정지역 복원프로그램을 발표했던 적이 있다.(2003년 10월) 복원하는 곳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이곳엔 쿠르나(Qurna)라는 도시가 있고 이라크 유일의 항구 바스라 북쪽 4km 지점이었다. 쿠르나 북서쪽 70km 지역엔 아브라함 고향 우르(Ur)가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주님께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뒤 에덴에서 살라 하셨다.(창세 2,15)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못 먹게 하셨다. 그리곤 하와를 아내로 보내주셨다. 남녀가 만나 행복을 만들면 그곳이 어디든 에덴이 된다는 가르침이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낙원을 떠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금단의 과일을 먹었다는 건 표현일 뿐이다. 표현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에덴동산이 어디에 있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살고 있는 곳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이 진실로 소중한 일이다. 에덴이란 말은 수메르어 에디누(edinu)에서 왔고 평지平地를 뜻한다.

색깔은 죄가 없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감동, 실망과 좌절까지 두루 맛보며 평화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경험하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단지 남북,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 정치 문제이고 강대국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6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와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현 주교는 미사를 6월 25일에 봉헌하는 것에 대해 “6·25전쟁은 씻을 수 없는 집단적인 상처지만 용기있게 화해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남남갈등,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화해하기 위해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이 주교가 언급한 ‘6·25전쟁이 남긴 집단적인 상처’는 현대사를 관통하며 지금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번 ‘빨갱이’로 지목되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겐 그야말로

죽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까지 ‘빨갱이’라고 욕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빨갱이’라는 용어는 시간이 흘러 ‘종북, 좌파, 용공, 주사파, 좌빨’이라는 단어로 모습을 바꾸어 가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우리 사회에 분열을 야기하고 정치적 지지자를 뭉치는 도구로 왕왕 이용되고 있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게 된다. 전쟁이 남긴 해악과 실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빨갱이’라는 틀 속에 사람을 묶어매는 일은 끝내야 한다.

알다시피 어떤 전쟁이든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고 특히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수만 무려 450만이라 한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세대가 북을 비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대부분인 이 시대에 ‘나의 경험이 절대적이지 받아들이라’고 누가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오로는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로마 9,3)라고 하였다. 남남, 남북의 진정한 일치는 사도 바오로의 마음, 즉 신앙적 희생을 밑거름으로 한 초월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